

『童蒙先習』의 서지적 재검토*

Bibliographical Reconsideration of *Dongmongseonseup*

옥 영 정 (Ok, Young Jung)**

◁ 목 차 ▷

- | | |
|------------------------------|--------------------------------------|
| 1. 서 언 | 3.2 「대동운부군옥」에 쓰인 김안국
저자표시에 대한 재검토 |
| 2. 동몽선습의 판본 유형 정리 | 3.3 장서각 필사본에 대한 재검토 |
| 2.1 구분의 방식 | 3.4 춘방장판 『동몽선습』의 간행시기 |
| 2.2 판본유형 | 4. 결 언 |
| 3. 간행시기와 저자표시에 대한 서지적
재검토 | <참고문헌> |
| 3.1 초기 간본의 판각시기와 인쇄시기 | |

<초 록>

『동몽선습』은 조선시대에 민간에서 주도하여 편찬한 대표적 아동학습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동의 학습서 중에 국내 학자에 의해 저술된 독자적 교재라는 큰 가치를 고려하면 『천자문』, 『효경』 등 다른 아동학습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 면이 없지 않다. 이는 그동안 이 책의 생성과정, 편찬자, 체제, 유형, 변천 및 유통 등 책의 문화사적 측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서지적 연구에서 다룬 『동몽선습』의 판본이나 저자관련 내용과악에 더하여 판본정리와 함께 특히 조선전기본의 유통에 대한 단서를 확인하고 서지적 측면에서 새롭게 다루거나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았다. 그 내용은 백운동서원에 보낸 문서의 기록을 통해서 『동몽선습』이 최소한 1547년 2월 이전에 판각, 인쇄되어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살펴보지 못했던 자료를 참고하여 김안국 저자설에 대한 보완적 검토결과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 인용서목과 본문에서 김안국을 『동몽선습』의 저자로 표시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필사본의 작성과 후에 목판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장서각 소장 필사본 『동몽선습』에 대한 서지적 고증을 통해서 장서각 소장본이 19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간역일기의 분석을 통해 춘방장판 『동몽선습』의 간행시기를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동몽선습』의 문화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要語: 동몽선습, 대동운부군옥, 춘방장판, 인쇄문화, 서적간행

* 이 논고는 2015년 5월 29일 한국문중문화유산연구원에서 주관한 학술대회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교수(gabinja@aks.ac.kr)

투고일: 2019년 4월 29일 최초심사일: 2019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17일

서지학연구, 제78집, 25-48,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8.25]

<ABSTRACT>

Dongmongseonseup has been known as the representative children's textbook published by private initiative in Chosun Dynasty. Considering the significant value as the independent textbook for the children published by a domestic scholar, however, it seemed to be treated carelessly compared to the other children's books such as 'Thousand-Character Classic,' 'Classic of Filial Piety,' and so on. This might be resulted from unrevealed aspects of the book in terms of cultural history including the process of its publication, publisher, system, type, transition, distribution, and so on so far. In this article, several points were reviewed to be treated or supplemented newly in view of bibliography upon confirmation of the evidence for the distribution of early Chosun edition in addition to the woodblock-printed book of *Dongmongseonseup* or author related contents reviewed in the previous bibliographical studies,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Dongmongseonseup* had been wood-blocked, printed, and distributed at least before February 1547 from the records of the document that was sent to Baek Woon Dong Private School. Second, upon the supplementary review result of the author theory with An Kook Kim referring to the data that were not reviewed in the past, the background that An Kook Kim was described as the author of *Dongmongseonseup* in the preface and the main contents of Daedong Woonboo Goonok by Moon Hae Kwon might be the error from the process transited from the transcribed copies into the woodblock editions. Third, the edition possessed by Jangseogak was assumed to be produced since nineteenth century from the bibliographical historical investigation for copied edition of *Dongmongseonseup* in Jangseogak. Fourth, the publication period of *Dongmongseonseup* in Choonbang edition was determined by the analysis of Ganyuk Diary. These studies seem to be the evidences to be able to approach *Dongmongseonseup* in view of cultural history in the future.

Key words: *Dongmongseonseup*, Daedong Woonboo Goonok, Choonbang edition, printing culture

1. 서 언

『童蒙先習』은 16세기 중반에 처음 편찬, 간행한 아동학습서로서 저술의 주요 목적이 문자학습을 끝낸 아동들에게 근본적인 유학적 도덕과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조 성리학의 심화는 자연히 학문의 첫출발인 아동교육에도 관심을 갖게 만들었으며, 아동교육의 심화를 기할 수 있는 교재들이 요구되었는데 주자의 『童蒙須知』가 보급되었으며, 아동들의 문자 학습을 위해서 『千字文』, 『類合』 외에도 『訓蒙字會』가 저술되고, 수신교재로서 『明心寶鑑』이 抄略되어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책들의 편간 흐름 속에서 『동몽선습』은 조선시대에 민간에서 주도하여 편찬한 대표적 아동학습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몽선습』의 중요도나 후대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천자문』, 『효경』 등 다른 아동학습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 면이 없지 않다. 아동의 학습서 중에 국내 학자에 의해 저술된 독자적 교재라는 큰 가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천자문 등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비교적 그 비중이 적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이 책의 생성과정, 편찬자, 체제, 유형, 변천 및 유통 등 책의 문화사적 측면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서지학적 측면에서 『동몽선습』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연구는 마에마교사쿠(前間恭作)와 와타나베마나부(渡部學)에 의한 간략한 해제가 있었다.¹⁾ 이후 방각본으로 언급한 연구,²⁾ 국어학자료로서 구결과 언해본을 다루고 있는 연구³⁾가 있으며, 역사서로 파악하여 그 사학사적 의의를 검토하려는 시도나,⁴⁾ 교육사 자료로서 가치를 부여한 연구⁵⁾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동몽선습』의 내용적 특성을 다루면서 편저자에 대한 새로운 견해나 이설을 검토하고 개별적 근거를 제시한 글이 있다.⁶⁾ 특히 근래에는 그 판본과 저자에 관한 본격적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편저자에 대한 여러 설을 정리하고 판본과 문자이동 등 형태, 원문서지학적 접근이 깊이 있게 진행되기도 하였다.⁷⁾ 이에 따라

1) 前間恭作, 『古鮮冊譜』(東京: 東洋文庫叢刊, 1957), 1535.

渡部學, 『近世朝鮮教育研究』(東京: 雄山閣, 1969), 275.

2) 金東旭, “坊刻本에 대하여,” 『東方學志』 11집(1970), 88-104.

3) 安秉禧, “童蒙先習과 그 口訣,” 『金亨奎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서울: 서울사대국어교육과, 1976), 267-323.
안소진, “『童蒙先習』의 서지와 언어,” 『冠岳語文研究』 30(2005), 67-85.

4) 韓永愚, 『朝鮮前期史學史研究』(서울: 서울대출판부, 1981), 235-256.

5) 丁淳陸, 『朝鮮時代教育名著巡禮』(서울: 培英社, 1986), 47-86.

6) 李崇寧, “『既存事典의 誤記와 混線에 대하여 - 특히 『동몽선습』의 編者是非를 중심으로 하여-,” 『編纂彙報』(精神文化研究院, 1980), 11-19.

安春根, 『韓國古書 評釋』(서울: 동화출판사 1986), 135-152.

朴東洙, “補說,” 『童蒙先習의 兒童教科書의 意義와 著者異說에 관한 研究』(咸陽朴氏宗親會, 1986), 1-7.

崔鳳永, “童蒙先習研究,” 『童蒙先習의 兒童教科書의 意義와 著者異說에 관한 研究』(咸陽朴氏宗親會, 1986), 165-179.

李應百, “동몽선습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4권1호(1994, 봄), 173-183.

충북대 우암연구소, 『동몽선습의 역사적 배경과 학술적 가치』(2016년 7월 9일 학술대회발표집).

7) 柳富鉉, “童蒙先習의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5·6합집(1990. 12), 481-524.

이 책의 공저자로서 立巖 閔齊仁(1493-1549)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고서목록이나 해제에서는 공저나 민제인 저술에 대한 표현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존의 서지적 연구에서는 『동몽선습』의 판본이나 저자관련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문헌과 기록자료를 바탕으로 한 판본정리와 함께, 특히 조선전기본의 유통에 대한 단서를 확인하고 더붙어서 서지학적 측면에서 새롭게 다루거나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서지적 분석 중에 기존에 살펴보지 못했던 자료를 참고하여 김안국 저자설에 대한 보완적 검토, 장서각 소장 필사본 『동몽선습』에 대한 서지적 고증, 춘방 간행 『동몽선습』의 간행시기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향후 『동몽선습』의 문화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보는 데 있다.

2. 동몽선습의 판본 유형 정리

2.1 구분의 방식

『동몽선습』의 간행동기는 문자학습이 끝난 사대부의 자제들을 교육시키기에 적당한 유학적 초학 교재를 마련함에 있었다. 立巖 閔齊仁(1493-1549)의 공저임을 밝힌 1543년 尹仁恕의 발문에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날마다의 생활에서 깨우쳐서 좋은 가르침이 되도록 하며, 때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보고 배우기만 하면 행동의 모범으로 하는 동시에 공부하는 본으로 삼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문장이 간략하고 알기 쉬운데다, 오래 배우지 않아도 뜻을 밝게 알 수 있게 했으며 책의 크기가 작고 분량이 적어 여러 지방의 판각처에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간행해낼 수 있었기에 이 책의 판본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간행되고 널리 보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현존본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1543년 윤인서 발문이 있는 간본부터 1879년의 춘방간본까지 인출된 책들을 살펴보면, 사가본에 비하여 관각본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했음을 의미한다. 조선전기에만 해도 光州, 鳳山, 高山, 南海, 巨濟, 平壤 등 다수의 지역 관아에 『동몽선습』의 책판이 보관된 사실이 『고사촬요』에서 확인된다.

간본 『동몽선습』의 유형을 구분하는 여러 방법 중에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동몽선습』에 쓰인 구결의 유형과 언해의 유무에 의한 것이다. 구결은 한자차용 구결, 한글구결로 구분되고 임란 이전의 간본은 모두 한자차용 구결이 쓰였다. 한자차용 구결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 오래된

柳富鉉, “童蒙先習 異本の 文字異同 研究,” 『書誌學研究』 15집(1998. 6), 77-102.

것은 이미 알려진 嘉靖癸卯跋文本(尹仁恕跋文本)과 함께, 마에마쿄사쿠(前間恭作)의 舊在山樓藏(現 東洋文庫 所藏本)인 갑진자본 『婦人大全良方』 표지 뒷면 배접지 1면이다. 형태적 특징이 嘉靖癸卯跋文本과 거의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연대를 정하기가 어렵다. 함께 배접된 1546년 작성 호구단자의 작성시기를 근거로 中宗明宗年間本으로 추정하였다. 이 자료는 ‘四周單邊, 19.5×12.1cm, 7行14字’ 版式の 제6장 半葉⁸⁾이며 처음에 고향자본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목판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본 尊經閣文庫所藏인 ‘萬曆丁亥(선조 20, 1587) 十二月日 密陽府開刊’의 간기가 있는 책은 ‘四周單邊, 22.1×16.5cm, 7行13字, 內向黑混入 2・3葉花紋魚尾’ 版式の 목판본이다.⁹⁾

그리고 판식의 형태적 비교를 통해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전기의 7行14字本 외에 조선후기에 간행된 『동몽선습』의 판본은 크게 9行16字本과 7行15字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9行16字本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 7行15字本이다. 영조대에 간행된 이 7行15字本을 기본으로 후대의 간본은 이를 번각하거나 혹은 1879년 춘방(시강원)에서 간행된 판에서 인출된 것들이다. 이 책들은 표제지 1장, 御製序 3장, 본문 17장, 宋時烈 跋文 2장이 수록된 것이 특징이다. 御製序와 본문에는 한자의 正字를 이용하여 小字로 구결이 인쇄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방식은 간행의 주체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동몽선습』의 간행배경이나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몽선습』에 대하여 그 간행규모나 종수를 기록으로 남긴 바는 없으나, 판본의 종수와 그 유형을 기존의 연구를¹⁰⁾ 참고하고 보완한 후, 판식의 底本관계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총 16유형 25종의 간본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25종 간본의 우선 기준은 간행시기로 이들은 본문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앞서 언급한 구결, 서발문 유무, 행자수를 포함하는 판식의 상태에 따라 구분된다. 참고로 주요 간본의 行字數와 版口, 魚尾, 序跋文 有無 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行字數는 한문본과 한글본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간행되는 개수본으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7行15字가 많으며 임란전 간본은 7行14字와¹¹⁾ 7行13字이고 정조대에 간행된 언해본은 10行16자의 특별한 판식이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 8) 前間恭作, 『古鮮冊譜』(東京: 東洋文庫叢刊, 1957), 1535. 童蒙先習.
 9) 尊經閣文庫 編, 『尊經閣文庫漢籍分類目錄』子部 童蒙先習 1冊 참조.
 10) 柳富鉉, “童蒙先習의 書誌의 研究,” 『書誌學研究』 5・6합집(1990. 12). 481-524.과 柳富鉉, “童蒙先習의 저자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권 3호(2009. 9). 389-402.에서 대부분의 판본을 언급하고 원문대조를 통한 상세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판본유형의 정리는 이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이에 따라 판본의 명칭도 대부분 선행연구에 따랐으나 ②와 ⑤, ⑥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였고, ⑫는 추가, ⑨는 槐山愛閑亭重刊本(戊寅1878)과 咸昌刊建陽丙申本(1897)으로 구분하고 간행시기를 수정하였다.
 11) 필자가 확인한 7행14자본 중에는 『童蒙須知』와 合本으로 한글구결이 판각된 책도 있으나 작성시기와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 연구의 『동몽선습』 유형에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이 책이 책판기록에는 남아있는 또 다른 판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급해두고자 한다.

- 漢文本

- 7行14字: 嘉靖癸卯跋文本(1543년 跋文), 中宗明宗年間本(1543-1567), [童蒙須知 合本]
7行13字: 密陽府刊萬曆丁亥本(1587)
8行12字: 慶州重刊本(1669 以前)
9行16~22字: 湖南完山刊康熙甲午本(1714)
7行15字: 乾隆壬戌芸館本(1742), 己卯新刊春坊本(1879), 道光丁未新刊由洞本(1847), 咸豐癸丑新刊本(1853), 華山刊咸豐丙辰新刊本(1856), 咸豐丁巳重刊本(1857), 石橋刊咸豐己未新刊本(1859), 光緒辛卯重刊本(1891), 咸昌再刊本(1897), 大邱刷還洞刊本(1900~1910)
8行15字: 石橋刊光武庚子新刊本(1900)

- 諺解本

- 7行15字: 乾隆壬戌芸館諺解本(1742)
10行16字: 嘉慶丁巳芸館諺解本(1797)

- 改修本

- 7行15字: 世昌書館刊「童蒙先學」(1915), 太華書館刊「童蒙初學」(1933)
8行15字: 朴元植書店刊「童蒙先訓」(1916)
8行16字: 天寶堂藏版本「童文先習」(1915)
7行16字: 新安書林刊「童蒙初習」(1923)
10行17字: 中央出版社刊「童蒙必習」(1946)

② 版口는 임란이전 간본에 黑口가 있으며 일부 白口가 혼입되었고 나머지 판본은 대부분 白口이다. 1797년에 간행된 嘉慶丁巳芸館諺解本은 특별히 上版口에 관심제를 판각해두었다.

③ 魚尾는 조선후기 간본의 대부분이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와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黑魚尾는 임란전 嘉靖癸卯跋文本(1543), 中宗明宗年間本(1543-1567), 密陽府刊萬曆丁亥本(1587) 간본 모두에 나타나며, 조선 말기 이후에 간행된 光緒辛卯重刊本(1891), 大邱刷還洞刊本(1900~1910), 世昌書館刊「童蒙先學」(1915), 天寶堂藏版本「童文先習」(1915), 朴元植書店刊「童蒙先訓」(1916), 新安書林刊「童蒙初習」(1923) 등에 나타난다.

④ 序跋文은 英祖御製序文과 宋時烈跋文이 乾隆壬戌芸館本(1742), 己卯新刊春坊本(1879), 咸昌再刊本(1897)에 수록되어 있다. 湖南完山刊康熙甲午本(1714)에는 宋時烈跋文만 남아있으며 嘉靖癸卯跋文本(1543)에는 尹仁恕跋文이, 石橋刊光武庚子新刊本(1900)에는 愼村子(黃泌秀) 署가, 嶺邑咸昌刊建陽丙申本(1896)에는 朴淵德識文이 있다.

이를 종합해서 간행시기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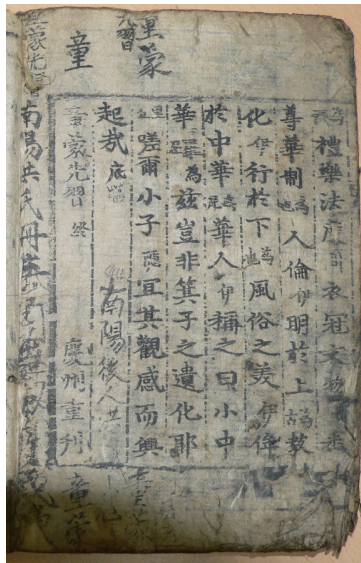
<표 1> 간행시기에 따른 목판본 『동몽선습』의 유형

구분	유형	간행시기	판본	行字數	黑口	魚尾	序 跋文
①	嘉靖癸卯跋文本	1543年 跋	木板本	7行14字	黑口・白口	상하내향3엽흑어미	跋(尹仁恕)
②	中宗明宗年間本	1543-1567	木板本	7行14字			
③	密陽府刊萬曆丁亥本	1587	木板本	7行14字	黑口・白口	상하내향3엽흑어미	
③-1	慶州刊重刊本	1669	木板本	8行12字	白口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④	湖南完山刊康熙甲午本	1714	木板本	9行16~22字	白口	상하내향2엽흑어미	跋(宋時烈)
⑤	乾隆壬戌芸館本	1742	木板本	7行15字	白口	상하내향3엽화문어미	序(英祖御製), 跋(宋時烈)
⑤-1	道光丁未新刊由洞本	1847	木板本	7行15字	白口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⑤-2	咸豐丁巳重刊本	1857	木板本	7行15字	白口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⑤-3	己卯新刊春坊本	1879	木板本	7行15字	白口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序(英祖御製), 跋(宋時烈)
⑤-4	光緒辛卯重刊本	1891	木板本	7行15字	白口	상하향흑어미	
⑥	乾隆壬戌芸館諺解本	1742	木板本	7行15字	白口	상하내향3엽화문어미	
⑥-1	嘉慶丁巳諺解本	1797	木板本	10行16字	白口 (版心題)	상하향3엽백어미	
⑦	咸豐癸丑新刊本	1853	木板本	7行15字	白口	상하향2엽화문어미	
⑦-1	石橋刊咸豐己未新刊本	1859	木板本	7行15字	白口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⑦-2	石橋刊光武庚子新刊本	1900	木板本	8行15字	白口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署(愼村子(黃 泌秀))
⑧	華山刊咸豐丙辰新刊本	1856	木板本	7行15字	白口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⑨	槐山愛閑亭重刊木板本	1878	木板本	7行15字	白口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序(英祖御製), 跋(宋時烈), 識(朴淵德)
⑨-1	咸昌再刊本	1897	木板本	7行15字	白口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序(英祖御製), 跋(宋時烈)
⑩	大邱刷還洞刊本	1900-1910	木板本	7行15字	白口	상하향흑어미	
⑪	世昌書館刊「童蒙先學」	1915	木板本	7行15字	白口	상하향흑어미	
⑫	天寶堂藏版本「童文先習」	1915	木板本	8行16字	白口	상하내향흑어미	
⑬	朴元植書店刊「童蒙先訓」	1916	木板本	8行15字	白口	상하향흑어미	
⑭	新安書林刊「童蒙初習」	1923	木板本	7行16字	白口	상하향흑어미	
⑮	太華書館刊「童蒙初學」	1933	木板本	7行15字	白口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⑯	中央出版社刊「童蒙必習」	1946	木板本	10行17字	白口		

2.2 판본유형

위에서 작성한 <표 1>을 바탕으로 판본유형을 살펴보면 ④, ⑧~⑯은 형태나 판식이 기존 底本이 없는 독자적 판본이며, ①, ②, ⑤~⑦은 번각, 중간 등의 저본 관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③ 密陽府刊萬曆丁亥本(1587)은 이후에 ③-1 慶州刊重刊本(1669 以前)의 저본이 된 것으로 보았으나¹²⁾ 판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2종 모두 官版本이라는 것 외에 ③과 ③-1의 저본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차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그림 1> 慶州重刊木板本
(고려대도서관소장)

⑤는 芸館刊乾隆壬戌本(1742)으로 두 계열로 나뉘는데, 春坊刊嘉慶己卯新刊本(기존에 1819년간본으로 알려졌으나 1879년간본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과 由洞刊道光丁未新刊本(1847)이다. 이 가운데 由洞刊道光丁未新刊本(1847)은 다시 咸豐丁巳重刊本(1857)과 光緒辛卯重刊本(1891)의 저본이 되었다.

⑥은 芸館刊乾隆壬戌諺解本(1742)을 저본으로 嘉慶丁巳諺解本(1797)이 간행되었다. ⑦은 咸豐癸丑新刊本(1853)을 저본으로 石橋刊咸豐己未新刊本(1859)이 간행되었고, 다시 石橋刊咸豐己未新刊本(1859)을 저본으로 石橋刊光武庚子新刊本(1900)이 간행되었다. ⑨는 충청도 괴산의 愛閑亭에서 무인년(1878년 추정)에 중간된 것을 바탕으로 1896년에 박세무의 후손인 朴淵德이 咸昌(尙州)군수시절에 再刊한¹³⁾ 것이다. 괴산은 박세무의 손자인 朴知謙(1549-1623)을 제향하는 화암서원이 있는 곳이며, 애한정도 그가 세상을 피하여 지내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간본을 현존본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관판, 사가판, 방각판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으며 1543년경에 嘉靖癸卯跋文本이 먼저 간행되었고, 다시 밀양에서 官刻本으로 密陽府刊萬曆丁亥本(1587)이 개간된 후, 1669년 이전에 경주에서도 중간되었다. 1714년경에는 완산에서 湖南完山刊康熙甲午本(1714)이 간행되었다. 1742년에는 교서관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는데 언해본도 함께 간행되었다.

언해본은 2가지 판본이 있으며,¹⁴⁾ 각기 7行15字本과 10行16字本이다. 전자는 직역에 가까운 언해

12) 柳富鉉, “童蒙先習의 書誌의 研究,” 『書誌學研究』 5·6합집(1990. 12). 498.

13) 이 책의 간행과 관련하여 장서각에 소장된 『履正日記』(청구기호B90-20) 1897년 2월 20일 기록에는 「童蒙先習」 간행에 대한 언급이 있다. 작성자가 경상도 상주의 개인으로만 알려진 이 일기에는 성주 朴淵德이 「동몽선습」을 지은 朴世茂(1487-1564)의 9대손이라는 것과 작성자 자신이 유년시절 읽어보았던 기억, 박연덕이 박세무의 先蹟을 재차 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는 재간본에 박연덕이 작성한 지문의 내용과 부합한다. 따라서 재간 시기는 박연덕이 지문을 작성한 丙申年(1896) 겨울 이듬해인 1897년일 것으로 여겨진다. 『履正日記』에 대해서는 권석창, “『履正日記』 해제,” 한국학자료센터DB 참조.

14) 언해본의 간행과정과 한글 번역에 대한 서지적 고찰은 김봉좌, “영조대 동몽선습의 간행과 한글번역,” 『동몽선습의 역사적 배경과 학술적 가치』(충북대 우암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2016년 7월 9일), 81-101.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를 하고 있어 경서 언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후자는 한자나 한자어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등 상대적으로 의역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체제 면에서 두 언해본에 차이가 있는데 7行15字本은 원문 없이 언해만을 싣고 있으나, 10行16字本은 원문에 일일이 한자음을 달고 언해는 본문보다 한 칸 낮게 쌍행으로 처리하였다. 10行16字本은 언해에서는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신 쌍행으로 주가 많이 첨가되어 있다.



<그림 2> 槐山愛閑亭重刊本の 篇題面과 함께 수록된 咸昌再刊本(1897)의 誌文



<그림 3> 完山開板本 卷首와 卷末(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언해본의 표기방식은¹⁵⁾ 7行15字本에는 협주가 없지만, 10行16字本은 언해 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에 협주를 달아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10行16字本은 한문 원문에 없는 말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7行15字本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문장구조를 택하고 있다.

한편 9行16字本인 湖南完山刊康熙甲午本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책의 앞부분이 낙장이어서 御製序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君臣有義’부터의 본문이 시작되고 마지막에 송시열 발문이 붙어있다. 발문 말미에 “崇禎紀元之後商橫閹茂陽甲午孟春甲子日 湖南完山開板謹跋”이란 간기가 있는데 이는 “崇禎紀元之後商橫閹茂陽月日 恩津宋時烈謹跋”이라는 송시열 발문의 “月日 恩津宋時烈”을 삭제하고 “甲午孟春甲子日 湖南完山開板”이라는 구절을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다. ‘甲午’라는 기록만으로는 간행연대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송시열이 발문을 쓴 1670년 이후의 甲午年인 1714년, 1774년, 1834년 중에 종이의 지질, 판각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1714년으로 1차 추정하였다. 또한 서울대 규장각에는 1879년 판각의 춘방장판본 목판 11장(도서번호 4710-4720)도 남아 있다.

3. 간행시기와 저자표시에 대한 서지적 재검토

3.1 초기 간본의 판각시기와 인쇄시기

임진왜란 이전의 간본 가운데 ③ 1587년 密陽府刊萬曆丁亥本은 간기가 명확하여 그 시기에 판각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는 ①, ② 판본의 선후와 인쇄시점에 대한 고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두 자료에 명확한 간기가 없고 특히 ②는 갑진자 인본의 표지 배접용으로 쓰인 것이어서 더욱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①의 경우 윤인서의 발문이 남아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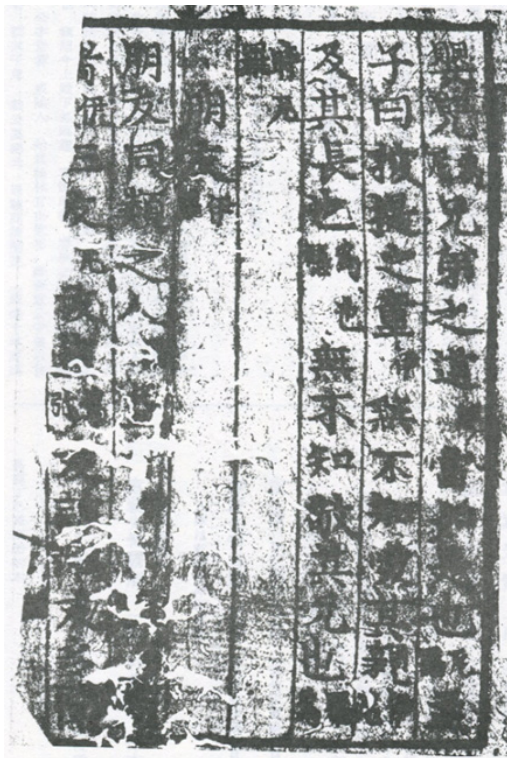
15) 안소진, “『童蒙先習諺解』의 서지와 언어,” 『관악어문연구』 30(2005), 67-85 참조.

표기 방식을 요약해서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芸館刊乾隆壬戌木板諺解本 (1742)	嘉慶丁巳木板諺解本 (1797)
表記	連綴表記	分綴表記
頭音法則	適用 O	適用 X
口蓋音化	適用 X	適用 O
滑音調	適用 X	適用 O
簡易化	適用 X	適用 O
圓唇母音化	適用 X	適用 O
ㄱ曲用語의 ㄱ脫著	適用 X	適用 O
七終聲摩擦音化	適用 X	適用 O
七終聲法	適用 X	適用 O
表記上 誤謬	無	有

로 발문의 작성시점인 1543년 겨울이 판각의 상한이 될 수 있지만 그 하한년도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글씨의 마모 흔적이나 인쇄상태 등 인쇄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서지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그 시점이 처음 판각되고 난 후 많은 인출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인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②의 인출시기는 처음에 1546년 전후로 추정하기도 하였는데 그 근거는 함께 배접된 1546년 작성 戶口單子의 작성시기에 따른 것이었다. 문서가 서책의 배접지로 쓰이기 위해서는 수년이 흘러야 하므로 최소한 1546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丙午本(1546)”이라는 명칭대신 中宗明宗年間本(1543-1567)으로 명칭을 정하였다.

또한 ①, ②의 동일한 면을 비교해보면 판형의 크기, 비율, 글자모양 등이 매우 유사하다. 이는 두 판본이 동일한 판본을 바탕으로 번각되거나 후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쇄시기는 ②가 ①보다 앞섰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정확히 확정짓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음 그림은 嘉靖癸卯跋文本과 中宗明宗年間本の 동일한 면을 같은 비율의 크기로 조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② 中宗明宗年間本 1면은 「古鮮冊譜」에 수록된 書影이다. ① 嘉靖癸卯跋文本은 현재 원본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류부현교수가 제공한 복사본으로만 점검한 것이다.



<그림 4> ②中宗明宗年間本



<그림 5> ①嘉靖癸卯跋文本

인출시기 외에도 그동안 가정계묘발문본의 판각 하한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발문의 작성연대를 기준으로 1543년 겨울로 보고 있지만 발문작성 이후에 곧바로 판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에서 작성한 기록 중에 이와 관련한 단서가 있다.

1544년에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慎齋 周世鵬은 주자의 백록동서원을 모범으로 삼아 건물, 학전, 장서를 갖추었다. 이때는 「동몽선습」이 처음 편찬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으므로 수집한 장서 중에 「동몽선습」이 남아있다면 책의 유통과정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서원에 서적을 구비하고 학전 마련을 위해 노력한 내용은 牧使 安瑋와 承旨 安珪에게 보낸 서신과¹⁶⁾ 실록에¹⁷⁾ 기록되어 있다. 즉 옛 숙수사 터에다 서원을 건립할 때 땅을 판지 1자도 못 되어 늦쇠 120여 근을 발견하여 이를 布 10同에 준하는 값으로 정하여 한성으로 보내 「四書三經」, 「二程全書」, 「朱子大全」, 「大學衍義」, 「通鑑綱目」 및 儒道를 밝히는 기타 서적을 구입하였다.¹⁸⁾ 또 경서와 성리학서 몇 질을 인쇄하여 비치하고 유림이 기증하는 서적을 1권의 책에 기록하여 다시 2질을 楷書로 옮겨 1부는 비치하고 1부는 그 집에 부쳤다고 한다.¹⁹⁾ 1547년 2월에 安珪이 마련한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의 기록에 의하면 「竹溪志」 외 서책 525권과 새로 구비한 49권을 등록하고 서원 밖으로 가져갈 수 없게 하였다. 또한 표지가 손상되면 郡에서 수보하며, 完帙 여부를 연말에 보고하여 망실이 없게 할 것을 정하기도 하였다.²⁰⁾ 같은 해 2월 22일에는 「大學」 1책, 「中庸」 1책, 「論語」 7책, 「孟子」 2권 7책, 「詩」 10책, 「書」 9책, 「春秋」 8책, 「童蒙先習」 1책, 「童蒙須知」 1책, 「入學圖說」 1책, 「天運紹統」 2책, 「朝鮮賦」 1책, 「張東海大法貼」 1건을 수송해왔다.²¹⁾

즉, 백운동서원에 보낸 서책 기록을 통해서 「동몽선습」이 1547년 2월 이전에 판각, 인쇄되어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간본이 이 시기 즈음에 판각되지 않은 이상 이 당시 소수서원으로 보낸 책은 윤인서 발문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부인대전양방」의 이면에 배접된 「동몽선습」 1장은 가정계묘발문본(윤인서발문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매우 유사한 판식과 크기를 보인다. 이는 두 간본이 서로 동일본이거나 번각되거나 기존의 판본을 바탕으로 거의 동시에 판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백운동서원에 1547년 2월에 인쇄하여 보낸 책들이 이전 간본으로는 현재까지 유일한 가정계묘발문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16) 「竹溪志」, 竹溪志安氏行錄後, 與安牧使瑋書, 附安承旨珪答書.

17) 「中宗實錄」 卷95, 中宗36年 5月 丁未.

18) 裴賢叔,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書籍考,” 『書誌學研究』 31(2005. 9) 269.에서 재인용

19) 玉泳晷,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31집(2005. 9). 315.

20) 「紹修書院謄錄」, 『朝鮮史料叢刊第』 17 (京城: 朝鮮史編修會, 1937) 第2張.

21) 「紹修書院謄錄」, 『朝鮮史料叢刊第』 17 (京城: 朝鮮史編修會, 1937) 第10張.

3.2 「대동운부군옥」에 쓰인 김안국 저자표시에 대한 재검토

저자 김안국설은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 인용서목과 본문에서 김안국을 「동몽선습」의 저자로 표시하였고 權鼈의 「海東雜錄」과 金佺의 「海東文獻總錄」 및 徐有渠의 「鏤板考」에도 이어져서 수록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 김안국설은 「대동운부군옥」의 著者인 權文海가 朴世茂와 같은 年代의 인물인 김안국으로 착각한 것²²⁾이라는 설명만 알려져 있다. 「대동운부군옥」에 대한 서지적 분석을 시도해본 필자는 왜 그렇게 저자표시가 될 수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주지하다시피 「대동운부군옥」은 16세기 말에 편찬이 완료되었지만 판각에 이르기까지 240여 년이 나 걸린 책이다. 후대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처음 목판본으로 간행된 1836년 인본을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를 진행한 듯하다. 「동몽선습」 초기 간본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16세기 말에 편찬이 완료된 시점의 「대동운부군옥」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동운부군옥」은 필사본으로 5종 이상이 남아있으며 모두 목판본 간행 이전의 자료들로 목판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꽤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동운부군옥」이 편찬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교정과정을 거쳤고, 발간되기까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현재 실물로 남아서 전해지는 「신편대동운옥」, 「대동운부군옥」은 필사본과 목판본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의 신식인쇄본으로 대별된다. 그 중에서도 필사본은 서명이 모두 「신편대동운옥」이며 교정하고, 내용을 첨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목판본은 1836년 초기인본과 1956년의 후쇄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필사본으로 남은 「대동운부군옥」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³⁾

「신편대동운옥」 필사본은 예천의 권씨 종가에 전해지는 것과 기관이나 개인에 남아있는 자료가 있다. 우선 권문해의 종가에 전해지는 것은 서명이 모두 「신편대동운옥」으로, 27책이 3가지 유형으로 전해지는데 완질로 남은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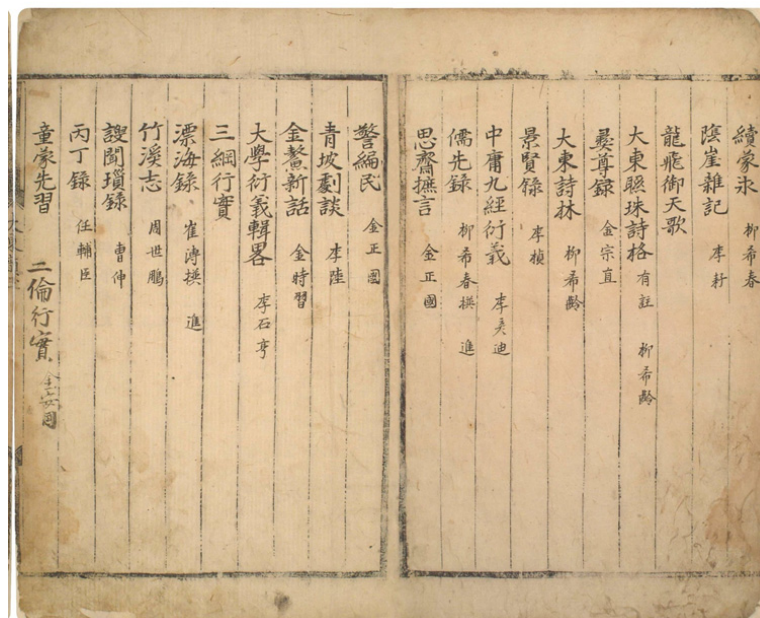
첫 번째 필사본(편의상 <필사본 1>로 표기)은 그 형태사항이 上下大黑口에 上下內向黑魚尾이며 계선이 있는 木板罫線에 필사한 책으로 18책이고, 다른 1종(<필사본 2>로 표기)은 흑구 없이 上下內向黑魚尾인 판으로 1책이며, 또 다른 1종(<필사본 3>으로 표기)은 흑구 없이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일부분 有紋魚尾)의 8책이다.

18책본 <필사본 1>은 전체 20권 20책 중에 제11권, 제18권이 결락된 책이다. 다른 필사본과 크게 구별되는 것은 첫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거의 빠짐없이 書眉, 書脚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필사본에 거의 빠짐없이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필사본 1>이

22) 朴東洙, “補說,” 「童蒙先習의 兒童教科書의 意義와 著者異說에 관한 研究」(咸陽朴氏宗親會, 1986), 1-7.

23) 필사본의 유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옥영정, “『大東韻府群玉』의 편찬과 간행,” 「조선의 백과지식」(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4-39.에 보다 상세하다. 이 절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고 「동몽선습」에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였다.

다른 필사본보다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되 그 시점은 편찬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시기일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하나 이 <필사본 1>의 특징은 각 책의 표지 이면에 수정 후 정서방식을 적은 범례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두 8개 항목으로 작성하였으며 정서할 때의 향자수, 影紙를 만들어 서사하는 방식, 추가되는 내용의 기술 방식, 삭제하거나 고치거나 뺀 곳의 처리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수정 후 정서본을 만들기 위한 지침은 다른 고본에 향자수를 제외하고 거의 반영되었다. <필사본 1>의 권수 인용서목에 「동몽선습」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三綱行實」이나 「龍飛御天歌」처럼 書名 아래에 저자표시가 없고, 바로 아래에 추가된 글씨로 「二倫行實圖」와 저자명 “金安國”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 6> <필사본 1>의 引用書目에 표시된 童蒙先習과 二倫行實

<필사본 1>의 형식과 달리 <필사본 2>(1책본)는 권1과 2가 합쳐져 2권 1책이며 향자수가 10향24자이다. <필사본 1>의 수정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고 지질이나 먹색 등의 상태도 <필사본 1>에 비해 후대의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필사본 3>은 권2, 7, 12, 13, 14, 16, 17, 20권 등 8책이 남아있는 것으로, 권 20의 권말에 효종 3년(1655)에 작성된 김응조의 발문이 있다.

3종의 고본은 모두 본문의 書眉, 書脚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追記는 모두 목판본에 반영되고 있어서 이들 필사본이 목판으로 간행하기 이전의 고본임을 알 수 있다.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 필사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김응조의 발문 기록대로 저자의 아들 권별

이 정산동주로 있을 때 경내의 善書者를 시켜 필사하여 보관하게 했다는 필사본과 그 저본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인데²⁴⁾(〈필사본 4〉로 표기) 권2가 결본인 19권 19책이다. 권20의 말에 정범조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판심에 어미가 없고 권17의 끝에 “主龍宮全氏近庵宅”의 장서가 있어 예천 용궁의 全氏家에 전해지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집안이나 권씨가에 남아있던 필사본을 바탕으로 傳寫하거나, 본래부터 소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필사본의 유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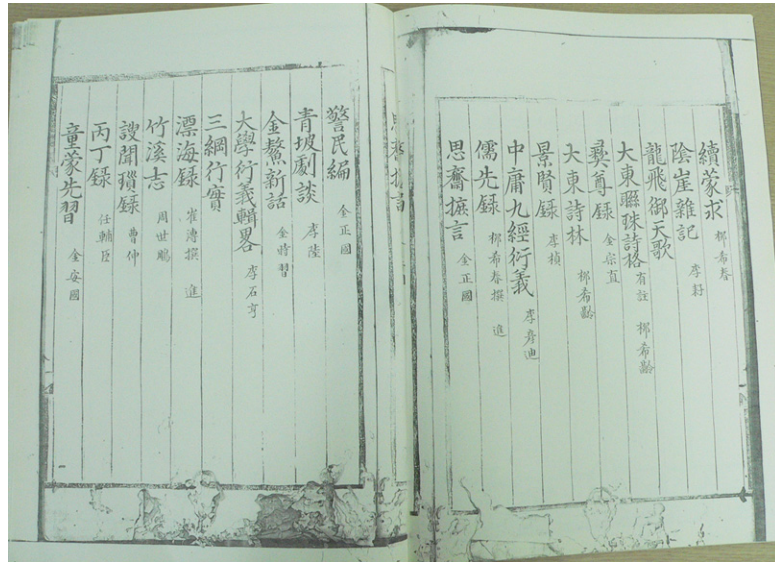
그리고 개인소장의 복사본(〈필사본 5〉로 표기)이 있는데 연구자가 복사본으로만 확인한 자료이다. 원본의 소재를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 책의 끝에 책을 수리하면서 기록한 필사기록이 남아있어서 주목된다. 글자가 일부분 탈락하여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책은 초간 권선생이 지은 것이다. 이때, 해월선조께서 예천의 원이 되어... 마침내 집안에 전하는 장서가 되었다. 그 목록과 편수를 살펴보면, 본래 12권인데 남아있는 것은 8권이다. 그러나 간혹 좀먹어 찢은 폐해가 있다.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단지 전해져온 옛 물건일 뿐이 아니라, 권마다의 제목이 또한 선조의 손때가 묻은 것이니 후손이 보관하는 도리가 어찌 옛 것을 완성해서 여러 (다른) 전수되는 물건보다 배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서 그 숨겨 없음도 잊고 파손된 곳마다 修補하여 그 편을 완전하게 하였으나 다만 4권을 잃어버려서 그 질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정미년 유화절(7월)에 해월헌의 소장본에 쓰다.”²⁵⁾

海月軒은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인 黃汝一(1556-?)의 호이다. 위의 글은 그의 후손이 작성한 것으로 세월이 흘러 책이 벌레 먹고 훼손되자 이를 보수하면서 남긴 것이다. 황여일은 1601년에 예천군수로 부임하였으므로 이 시기에 장서가 되었다면 이 책의 작성연대도 그 시기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책의 형태적 특징도 〈필사본 1〉과 같이 상하대흑구의 판심을 지니고 있고 글자의 향자수도 10행 21자로 같다. 〈필사본 1〉의 추가 또는 교정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필사본 1〉의 정서범례에 쓰인 것을 그대로 준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이 책은 1601년 당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예천군수이던 황여일의 소장본이 되었고 권씨가에 소장하고 있던 〈필사본 1〉을 저본으로 삼아 정서한 책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필사본 1〉의 작성시기가 최소한 임진왜란 이전으로 파악되고 권문해의 편찬당시 초고본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필사본 5〉의 권수 인용서목 「동몽선습」 항목에는 〈필사본 1〉의 내용을 반영하여 저자명 “金安國”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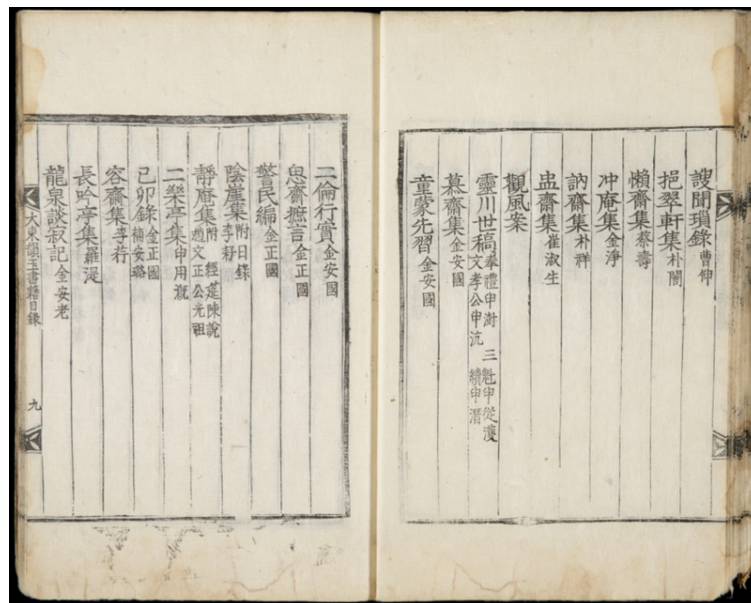
24) 윤호진, “신편대동운옥,”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해제 VII』 (서울: 동도서관, 2007), 557-570.

25) 卷末記錄: 此冊草潤權先生所著也 于時(海)月先祖作宰體泉... 來遂爲傳家之藏 而考其目錄篇數 則本十二卷? 所存... 八卷 然或有蠹朽之廢 其(想)惜 不但傳來之(舊)物 卷(之/卷)題目亦先祖之手澤 則後孫藏修之道 安得不(舊)而有倍於諸(休/件)傳守之物耶 余庸是重然 忘其拙手隨破修補以完其篇 而但恨四卷失之 不全其秩也 歲強圉協洽流火節 書于海月軒藏



<그림 7> <필사본 5> 引用書目에 표시된 「童蒙先習」과 金安國

마지막으로 卷首의 일부분만 남아있는 장서각 소장본이 있다. 표지서명이 「琴堂樵談」인 이 책은 전체 21장으로 大東韻府群玉纂輯古今書籍, 大東韻府群玉古今諸賢齋號의 내용만 담고 있는 필사본이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유통되고 알려진 1836년 간행 목판본에는 金安國의 문집인 「慕齋集」과 「童蒙先習」, 「二倫行實」 등이 함께 그의 저술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8> 1836년 목판본 인용서목에 표시된 「童蒙先習」과 金安國

「동몽선습」에 대한 김안국 저자표시는 이와 같은 여러 필사본과 후에 목판본으로 이어지는 생성 과정에서 나온 산물로 여겨진다. 실제 가장 이른 시기의 <필사본 1>에는 인용서목 「동몽선습」 아래에 저자표시가 없고, 바로 아래에 김안국의 「이륜행실도」 항목이 후대의 글씨로 추가되어 있다. 처음 인용서목이 작성될 때는 아마도 저자가 불명확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나 인용문헌을 추가한 후 동일인물의 저작이라는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3.3 장서각 필사본에 대한 재검토

이 책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소장본(A10D15A)으로 처음에 박세무 친필본으로 알려진 것이다. 백, 청, 황, 적, 보, 녹의 다양한 색상으로 물들인 한지에 붉은색과 푸른색의 광곽과 계선을 긋고 해서체의 글씨로 「동몽선습」 본문과 「소학」 입교편을 필사한 후, 끝에 신축년 “逍遙子”가 쓴다는 기록을 해 두어서 소요당이라는 호를 쓰는 박세무의 친필본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²⁶⁾ 고증을 통하여 그 필사시기가 영조대 이후로 박세무 친필본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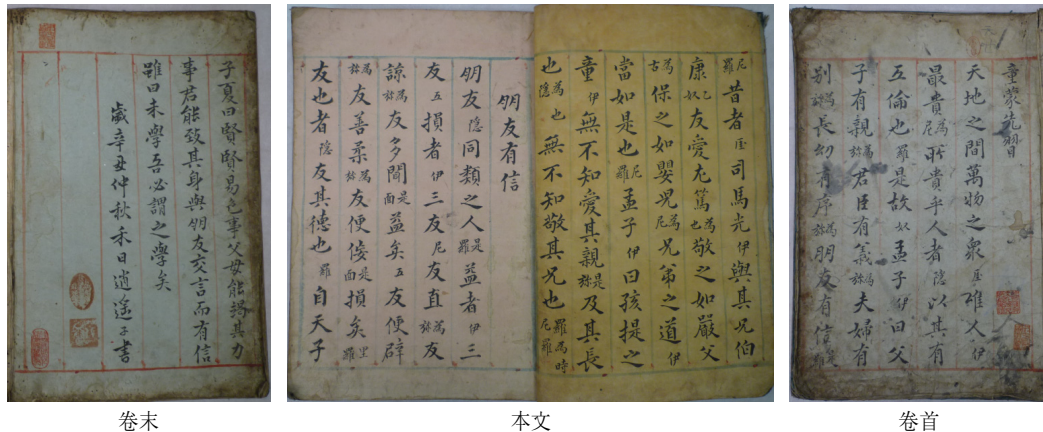
이는 특정시기 이후에 등장하는 口訣이나 글자가 사용된 것을 확인함으로써 1차적으로 고증되었다. 예를 들면 필사본에서 長幼有序의 “敬之如嚴父”가 1742년 영조대 이후의 판본에서 쓰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전의 간본에는 “奉之如嚴父”가 쓰였기 때문에 1742년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필사본의 작성시기에 대한 고증은 그 밖에 책의 형태적 특징을 통해서도 추정해볼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한국고서의 장정법인 五針眼의 線裝本이다. 판식도 모두 필사하였으며, 용지의 색상에 따라 붉은색 또는 푸른색의 광곽·계선에 책의 크기는 36.2 × 25.5cm이다. 일반적인 계선에 단변의 광곽을 썼으며, 6行에 매 1行당 12字이고 달필의 해서체 글씨다. 「동몽선습」의 본문을 큰 글씨로 쓰고, 작은 글씨로 한자구결을 표기하였고, 「소학」 입교편은 「동몽선습」의 본문의 글씨보다 약간 작게 썼다. 판심은 무어미, 무흑구로 아무런 기록이 없으며, 표지도 특별히 장황하였지만 많이 닳고 해져서 본래의 색상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이다.

다양한 색으로 물들인 한지에 붉은색과 푸른색의 광곽과 계선을 긋는 방식은 특별히 제작한 아동용 서적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주로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천자문」 등의 서책에서 확인된다. 장서각 소장본 중 19세기 후반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천자문」이나, 동아대박물관 소장의 19세기 「천자문」 등이 대표적이다. 아이의 생일이나 입교를 기념하기 위한 서적으로 「천자문」과 「동몽선습」이 주로 선호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장서각 필사본 「동몽선습」은 고의로 위작을 지으려고

26) 安秉禧, “童蒙先習과 그 口訣,” 『金亨奎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 (서울: 서울사대국어교육과, 1976), 267-323.
柳富鉉, “童蒙先習의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5·6합집(1990. 12), 508.

했다기보다는 逍遙子라는 자호를 쓰는 19세기의 누군가가 기념할 만한 책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9> 筆寫本(장서각소장본)

3.4 춘방장판 『동몽선습』의 간행시기

앞서 살펴본 대로 『동몽선습』의 판본 중에는 己卯新刊 春坊藏板의 간기가 있는 책이 있다. “春坊本”으로 불리는 이 시장원 간행서적은 다수의 목록이나 연구에서 간행시점을 확정짓지 않거나 잘못 추정한 경우가 많다. 이는 기묘년의 간지에 해당하는 『동몽선습』의 간행년도를 목록작성자에 따라 1879년, 1819년, 1759년, 1699년 등 무려 180년이나 차이나도록 정함으로써 연구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원책역소일기』에 수록된 기록과 현전 책판의 분석을 통해서 현재 규장각과 장서각 등에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기묘신간본의 간행시기를 확정지을 수 있다.

『시장원책역소일기』는 시장원의 부속기관으로 시장원에서 세자교육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과 서적의 출판업무까지 맡았던 侍講院冊役所의 기능을 알 수 있는 서적이다.²⁷⁾ 고종 16년(1879) 9월 3일부터 이듬해 11월 16일 사이의 기록을 적고 있다.

1879년 9월 3일 시장원에서 세자교육을 위하여 內에 들일 새로 만들 책자의 표점 및 현토와 새로 간행할 『童蒙先習』, 『通鑑』, 『史略』, 『續史略』, 『全韻玉篇』의 刻役을 시작할 吉日을 日官 金載霖으로 하여금 가려 뽑게 하고, 같은 달 6일 卯時가 길하다고 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이다.²⁸⁾ 각역의 監督官(輔德, 兼輔德, 弼善, 兼弼善)을 정하여 전교하였으며,²⁹⁾ 실제로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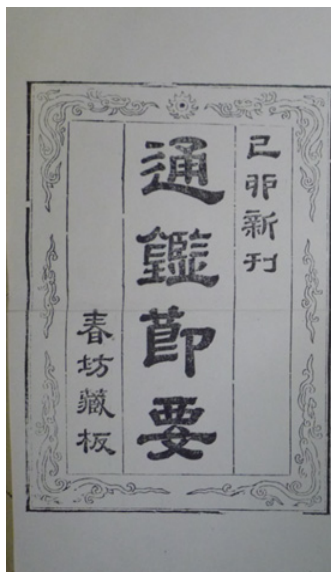
27) 玉泳晷, “侍講院의 書籍編纂과 刊行記錄 考察,” 『書誌學研究』 18집(1999. 12), 369-393.

28) 『承政院日記』 高宗16年 己卯 9月 3日.

“... 侍講院 啓曰 內入新造冊子頤頤懸吐 與新刊童蒙先習通鑑史略續史略全韻玉篇刻役.始役吉日 今日官金載

6일부터 일이 시작된 것³⁰⁾으로 冊役이 정해진 날부터 일기를 적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 冊役 때에, 일을 끝마칠 때까지 감독관 4원이 매일 나갔나 나가지 않았나를 기록한 단자를 5일씩 모아서 수정하여 써서 들이라.”³¹⁾고 하교한 것 또한 책역소일기의 편찬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강원에서 책을 간행한 것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은 정조 10년(1786) 시강원에서 校印한 「羹牆錄」(정유자본 4책)과 순조 31년(1831)에 간행한 「謨訓集要」(정유자본 3책)를 들 수 있다. 주로 교서관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며 시강원에 별도로 인쇄 도구를 두고 인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책 발행의 책임과 교정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시강원에서 간행한 서적은 주로 편제면에 ‘春坊藏板’이라 판각하였다. 규장각과 장서각 현존본 중에도 春坊藏板으로 남은 책이 있으며 편제면에 대부분 己卯新刊 春坊藏板 혹은 乙亥新刊 春坊藏板의 간기를 남기고 있다. 이 때 편제면의 글씨는 승지 兪初煥(1819-1893)이 썼다.



<그림 10> 1879년 春坊本
「通鑑節要」



<그림 11> 1879년 春坊本
「史略通攷」



<그림 12> 1879년 春坊本
「童蒙先習」

霖推擇.則今月初六日卯時爲吉云 以此日時舉行之意敢 啓 傳日知道…”

29) 「承政院日記」高宗16年 己卯 9月 3日.

“… 以司謁口傳 下教曰.今此 內入新造冊子頗頗懸吐 與刻役時監董官 以輔德兼輔德弼善兼弼善爲之.”

30) 「侍講院冊役所日記」己卯 4月 6日.

“丙子 … 卯時始役 ….”

31) 「承政院日記」高宗16年 己卯 9月 6日.

“… 以司謁口傳下 教曰 今番冊役時 告畢間 監董官四員 每日進不進單子 合五日 修正書入…”

잘 알려진 책 중에 「童蒙先習」 1책, 「史略通攷」 9卷 8冊, 「全韻玉篇」 2卷 2冊, 「通鑑節要」 등은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장각에는 春坊藏板의 책판실물로 언급된 책판이 거의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 각 책판마다 일부를 제외하고 빠짐없이 거의 대부분 남아있으며 이는 1879년 기묘년에 제작된 책판으로 확인된다. 특히 「童蒙先習」의 편제면을 판각한 책판은 「史略通攷」의 편제면과 동일한 책판에 양면으로 판각되어 있어서 이시기에 함께 간행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다음 표는 1879년 9월에 「童蒙先習」을 포함한 강학교재 간행의 첫 과정을 요약해본 것이다. 이 작업은 이듬해 11월까지 지속되었으며 각 책의 편제면에는 己卯新刊 春坊藏板의 간기가 판각되었다.

<표 2> 강학교재 간행의 첫 과정을 수록한 「시강원책역소일기」 1879년에 9월의 기록

월	일		날씨	주요내용
九月	初三日	癸酉	晴	• 世子宮內에 들일 新造冊子 頤頤·懸吐와 刻役의 監董官을 지정(輔德 朴定陽, 兼輔德 閔泳翊, 弼善 洪英植, 兼弼善 趙同熙)
	初四日	甲戌	晴	• 新造冊子の 頤頤·懸吐와 새로 간인하는 「童蒙先習」, 「通鑑」, 「史略」, 「續史略」, 「全韻玉篇」을 새기는 길일을 今月 初六日 卯時로 택한.
	初六日	丙子	晴	• 冊役 기간 監董官의 仕進 여부를 單子에 기재하도록 지시. • 新造冊子 頤頤·懸吐와 새로 간인하는 「童蒙先習」, 「通鑑」, 「史略」, 「續史略」, 「全韻玉篇」을 刊行所에서 스스로 판을 만들고 計士를 정하여 마련하여 수송할 것. • 新造冊子の 懸吐에 쓰일 물목을 11월 안으로 진상할 것.
	初十日	庚辰	早雨晚晴	• 監董官의 5일치 仕進單子를 써서 들임
	十一日	辛巳	晴	• 內入冊子 懸吐에 쓰일 靑花墨을 마련할 것
	十二日	壬午	晴	• 黃海監營에서 內入冊子 懸吐할 때에 쓰일 眞墨 50同, 全羅監營에서 竹靑紙 一百束을 올림
	十五日	乙酉	晴	• 監董官의 5일치 仕進單子를 써서 들임
	十七日	丁亥	晴	• 冊子에 懸吐할 寫字官 5員을 加差
	二十日	庚寅	晴	• 監董官의 5일치 仕進單子를 써서 들임 • 寫字官 劉漢謙이 身病으로 劉綺祐와 교대
	二十二日	壬辰	早晴晚陰	• 각 房에서 日用할 나무와 솥을 조달
	二十五日	乙未	晴	• 監董官의 5일치 仕進單子를 써서 들임 • 監董官 외 각 인원에게 賜饌
	二十七日	丁酉	早陰晚晴	• 內入冊子 「童蒙先習」, 「通鑑」, 「史略」, 「續史略」, 「全韻玉篇」을 새로 간행한 후 인쇄할 때 初再三見에 쓰이는 楮注紙를 선택하여 마련한 후 수송할 것.
	二十八日	戊戌	晴	• 全羅監營에서 冊子를 새로 간인할 때 쓰일 壯紙 五百束, 冊白紙 一千五百束을 乙亥年 見樣紙의 예에 의거하여 만들어 올릴 것
	三十日	庚子	晴	• 監董官의 5일치 仕進單子를 써서 들임



<그림 13> 규장각에 소장된 1879년 춘방본의 책판

4. 결 언

조선전기 개인이 편찬한 아동교화서로 「동몽선습」이 지니는 서지학적 의의는 매우 크다. 그 의의는 첫째로 개인 학자가 유학적 도덕에 기반한 아동의 학습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로 초기판본에 해당하는 목판본과 이를 바탕으로 다시 간행한 판본이 매우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교화서의 성격을 지닌 역사서라는 것이다.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책이라는 점에서 교화서 및 역사서 보급과 유통과도 영향관계가 성립된다. 「동몽선습」은 바로 이러한 조선전기 교화서 및 역사서 가운데 가장 간략하면서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조선시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간행이 이루어진 동몽서 중에 교화와 역사를 동시에 표방한 자료는 매우 드물다.

세 번째로 이 책은 편찬과 유통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서지발굴과 더불어 책의 문화사적 연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 백성으로부터 왕세자에 이르기까지 문자를 익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동몽선습」을 접하였고, 18세기 이후에는 국왕의 서문이 붙어서 간행될 만큼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문헌과 기록자료를 바탕으로 판본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조선전기본의 유통에 대한 단서를 확인하고 더불어서 서지적 측면에서 새롭게 다루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검토해 보았다.

확인된 내용은 우선 백운동서원에 보낸 문서의 기록을 통해서 「동몽선습」이 최소한 1547년 2월 이전에 판각, 인쇄되어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김안국 저자설에 대한 보완적 검토를 수행한 결과,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 인용서목과 본문에서 김안국을 『동몽선습』의 저자로 표시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필사본의 작성과 후에 목판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필사본 『동몽선습』에 대한 서지적 고증에서는 형태적 특징분석을 통해 장서각 필사본 『동몽선습』이 19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춘방장판본 『동몽선습』의 간행시기에서는 간행당시에 작성된 일기와 책판실물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확정되지 못한 춘방장판본 『동몽선습』의 간행시기를 1879년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동몽선습』의 문화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履正日記』.

『竹溪志』.

『紹修書院謄錄』 朝鮮史料叢刊第17. 京城: 朝鮮史編修會, 1937.

『中宗實錄』 卷95, 中宗36年 5月 丁未.

『承政院日記』, 高宗16年 9月 3日 6日.

『侍講院冊役所日記』.

권기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책판의 현황과 특징.” 『奎章閣』 50(2017. 6). 387-502.

김봉좌. “영조대 동몽선습의 간행과 한글번역.” 『동몽선습의 역사적 배경과 학술적 가치』. 충북대 우암연구소 학술대회, 2016년 7월 9일. 81-101.

渡部學. 『近世朝鮮教育研究』. 東京: 雄山閣, 1969.

柳富鉉. “童蒙先習의 書誌의 研究.” 『書誌學研究』 5·6합집(1990. 12). 481-524.

柳富鉉. “童蒙先習 異本の 文字異同 研究.” 『書誌學研究』 15집(1998. 6). 77-102.

柳富鉉. “童蒙先習의 저자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권 3호(2009. 9). 389-402.

朴東洙. “補說.” 『童蒙先習의 兒童教科書의 意義와 著者異說에 관한 研究』. 咸陽朴氏宗親會, 1986. 1-7.

裴賢叔.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書籍考.” 『書誌學研究』 31(2005. 9). 263-296.

安秉禧. “童蒙先習과 그 口訣.” 『金亨奎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 서울: 서울사대국어교육과, 1976.

안소진. “童蒙先習 諺解의 서지와 언어.” 『관악어문연구』 30(2005).

安春根. 『韓國古書 評釋』. 서울: 동화출판사, 1986. 135-152.

- 옥영정. “『大東韻府群玉』의 편찬과 간행.” 『조선의 백과지식』.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옥영정.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31집(2005. 9). 297-321.
- 옥영정. “侍講院의 書籍編纂과 刊行記錄 考察.” 『書誌學研究』 18집(1999. 12). 369-393.
- 윤호진. “신편대동운옥.”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해제 VII』. 서울: 동도서관, 2007.
- 李崇寧. “既存事典의 誤記와 混線에 대하여 특히 『동몽선습』의 編者是非를 중심으로 하여.” 『編纂彙報』. 精神文化研究院, 1980. 11-19.
- 李應百. “동몽선습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4권 1호(1994. 봄). 173-183.
- 前間恭作. 『古鮮冊譜』. 東京: 東洋文庫, 1957.
- 丁淳睦. 『朝鮮時代の 教育名著巡禮』. 서울: 培英社, 1986.
- 尊經閣文庫 編. 『尊經閣文庫漢籍分類目錄』. 東京: ゆまに書房, 1998.
- 崔鳳永. “童蒙先習研究.” 『童蒙先習의 兒童教科書의 意義와 著者異說에 관한 研究』. 咸陽朴氏宗親會, 1986. 165-179.
- 최영성. “동몽선습 저자에 대한 재론.” 『공자학』 32(2017. 5). 135-168.
- 충북대 우암연구소. 『동몽선습의 역사적 배경과 학술적 가치』. 우암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집, 2016년 7월 9일.
- 韓永愚. 『朝鮮前期史學史研究』.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1. 235-256.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Young-song. 2017. “A Study on the Author of Dongmongseonseup.” *GONG JA HAK*, 32: 135-168.
- Kwon, Ki-seok. 2017.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ooden Printing Blocks of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yujanggak*, 50: 387-502.
- Ok, Young-jung. 1999. “A study of book compilation and publication record of Sigangwo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18: 369-393.
- Ok, Young-jung. 2005. “A Bibliographical Study on Compilation and Edition of “JookGeJi (竹溪志).””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31: 297-321.
- Pae, Hyon-Suk. 2005. “A Study on the Books Stored and Published in Sosu Seowo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31: 263-296.
- Yoo, Boo-Hyeon. 1990. “A Bibliographical Study of Dongmongseonseup.”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 · 6: 481-524.

- Yoo, Boo-Hyeon. 1998. "A study on the movements of the letters appeared in the copies of different edition of 『Dongmongsunseup (童蒙先習)』."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15: 77-102.
- Yoo, Boo-Hyeon. 2009. "The Study of Writer Who Wrote a Dongmongseonseup."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389-402.